

학종 손질엔 공감대 공정성 확보 과제로

광주교육청 대입정책 포럼

교내 수상·창의적 활동 등 축소

투명한 기록·평가 과정 관건

수능 시험 난도 하향 의견도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현행 대입제도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에도 이를 손질해 운용하는 것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차 광주 대입정책 포럼에서는 학종 전형 확대의 선결과제로 학생부 기록과 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제시됐다. 참고육 학부모회 등은 학종 전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능의 비중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1994년 이래 20여 년 동안 수능을 대비하는 학교 수업이 학생의 창의적 생각을 키워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학생 중심으로 바람직한 교실 수업을 가져오는 학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외에 현재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부모 경제력이 작용하는 '금수저 전형', 전형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깜깜이 전형', 학교·교사에 따라 달라지는 '복불복 전형', 내신 상위권 학생에게 몰아주는 '불공정 전형' 등이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학종 전형의 공정성을 위한 방안으로 교사 간 학생 정보의 소통과 공유를 통해 만들어지는 학생부 기록, 학생부 관련 지침과 기재요령의 전면 개편, 학교 내 수상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양 축소, 학교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변화

등을 제안했다. "학교 중심 학생부(학교가 무엇을 가르쳤나)를 '학생 중심 학생부(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배웠나)'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수능의 영향력 약화 내지 자격고사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학교 여건이 수능, 학생부, 논술 등을 모두 준비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를 모두 준비해 줄 수 있는 학교는 드물고, 학교가 감당하지 못하면 학부모들을 결국 사교육에 의지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광덕고 신희돈 교사는 이와 관련, 지난 1차 포럼에서 "경남의 한 고교는 교과 64개, 비교과 160개 등 1년에 224개 상을 주는 반면 5개 교과는 학생들의 활동이 우수하더라도 학교에서 계획한 상이 없어 수상경력이 전무하다"며 "학교, 교사에 따라 달라지는 '복불복 전형'이라고 비판한바 있다.

김 교수에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경희 참교육학부모회 사무국장은 "절대평가 도입을 시작으로 수능 시험 난도를 낮추면 학교 교육은 수능 준비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의 다양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학종전형은 학생이 교과 수업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특성과 소질을 중심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봉기 살레시오 여고 교사는 "수능은 가정환경, 거주 지역, 사교육 환경, 재학생과 졸업생, 학교 수준, 성별 등에 따라 차이를 측정하기에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시간이 주어진 속도전 시험이자 객관식으로 평가 도구에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한 문제만 틀리면 불합격이 보장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은 3월 말 제3차 포럼을 연 뒤 논의 결과를 대입제도 개편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행 대학 입시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주로 보는 '수시'와 수능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로 나뉜다. 수시에는 내신성적 위주인 '학생부교과전형'과 동아리 활동·봉사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 영역을 함께 종합적으로 보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교복 나눠 입어요” 21일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구 교복 나눔장터를 찾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복을 고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방선거 앞 흑색선전·여론조작 난무

전남경찰, 영암 민주 당비 대납 등 고소·고발 21건 접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청과 도내 21개 경찰서에서 조사한 사건은 총 21건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2건, 금품제공 10건, 여론조작 2건, 사전선거운동 5건, 기타 2건이다.

경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별 사결

의 내용이나 종결 여부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영암에서는 최근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173명분의 10개월치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영암 한 농협 지점을 찾아 민주당 전남도당 계좌에 당비 173만원을 입금했다.

A씨에게 송금 사실을 들은 전남도당 관계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입금을 취소하도록 했으나 경찰은 당비 대납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지난 14일 전 시민단체 대표인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광주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전임 당직자가 당원명부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중인 선거 사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당원명부 유출 의혹 사건 외에도 몇몇 사건을 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안병하 경찰영웅상’ 제정 추진

경찰유족모임, 순직·부상 당한 전·현직 경찰관 발굴... 12월 선정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을 기리는 ‘경찰영웅상’ 제정이 추진된다.

21일 대한민국경찰유가족회, 안 치안감 유족 등에 따르면 올해 연말을 목표로 ‘안병하 경찰영웅상’이 제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경찰청은 안병하 전 전남도경찰국장(당시 경무관)을 1계급 특진과 함께 ‘2017년 경찰 영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안 치안감 유족을 비롯한 경찰유족모임 ‘대한민국경찰유가족회’, 전·현직경찰관모임 ‘무궁화클럽’, 시민단체 ‘SNS시민동맹’ 등은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잊혀진 경찰 영웅을 발굴해 ‘안병하 경찰 영웅상’을 공동 주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시상 대상은 범인 검거나 시민 구조 과정에서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전·현직 경찰관이다. 매년 11월까지 추첨받은 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12월에 1명을 선정·발표, 이듬해 1월 열리는 경찰유족회 공식 행사 때 시상한다는 계획이다. 안 치안감의 셋째 아들 호재(59)씨는 “아버지처럼 치안 일선에서 경찰 정신을 발휘하다가 부상당하거나 순직한 경찰관 등을 발굴해 희생정신을 기리고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상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음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1	해질녘	18:21			
해돋이	10:57	해질녘	--:--			
한낮엔 포근						
중국 남부지방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아 지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 많음	-4/8	보성	구름 많음	-6/7	
목포	구름 많음	-4/5	순천	구름 많음	-2/8	
여수	구름 많음	-2/8	영광	구름 많음	-7/5	
나주	구름 많음	-7/7	진도	구름 많음	-3/6	
완도	구름 많음	-2/8	전주	구름 많음	-6/8	
구례	구름 많음	-7/8	군산	구름 많음	-7/6	
강진	구름 많음	-5/9	남원	구름 많음	-8/7	
해남	구름 많음	-6/8	축산도	구름 많음	0/7	
장성	구름 많음	-7/7				
◇ 바다 날씨						
	오전	파고(m)	풍향	파고(m)	오후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남서~서	0.5~1.0	
	면바다	북서~북	0.5~1.5	남서~서	0.5~2.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서~북서	0.5~1.0	
	면바다(동)	북~북동	0.5~1.5	서~북서	0.5~1.5	
	면바다(서)	북~북동	0.5~1.5	북서~북	1.0~1.5	
◇ 물때						
목포	간조	11:29	만조	06:21		
		23:52		18:32		
여수	간조	06:52	만조	00:58		
		19:22		13:05		
◇ 주간 날씨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3/1(목)
☁	☀	☀	☀	☀	☀	☀
0/13	0/12	2/10	-3/11	-1/13	3/10	0/10

07:11 10:57

18:21 --:--

◇ 생활지수

- ☀ 맑음: 매우 높음
- ☁ 구름: 매우 높음
- ☔ 비: 보통
- ❄ 눈: 미세먼지

본 상품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협력기업인 (주)아침가리, (주)아라움, 살롬산업(주), (주)벌교꼬막이 전남의 싱싱한 수산물로 만든 최고품질의 수산가공 베스트 상품입니다.

(주)아침가리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모사길 62 Tel. 061)542-8933

- 볶음용멸치 250g 6,100 원
- 국물용멸치 200g 4,000 원
- 볶음용멸치 500g x3 33,000 원
- 볶음조림용멸치 500g x3 33,000 원
- 전미역 250g 3,800 원
- 해산물세트 17,000 원

(주)벌교꼬막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왕암길 185-05 Tel. 061)745-9907

- 꼬막볶음고추장 5,850 원
- 왕꼬막통조림 간장 2,250 원
- 꼬막통조림 소금 2,700 원
- 꼬막통조림 간장 2,700 원

살롬산업(주)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어시물길 10 Tel. 1577-8885

- 히팅록 소고기맛 4,500 원
- 제품 설명:
 - 발열체가 내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별도의 가열장치 없이 조리 가능합니다.
 - 물을 붓고 졸을 끓여당기면 15분 후 드실 수 있습니다.
 - 아오모더를 즐기시는 고객들이 많이 찾는 제품입니다.
- 히팅록 치킨카레맛 4,500 원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전남 대표수산기업인 (주)아라움, 살롬산업(주), 무안 구로어촌계, 여수 안포어촌계, 해남 송호어촌계와 함께 조만간 전남 대표 수산가공상품을 출시합니다.

(주)아라움 대표 김미선, 살롬산업(주) 대표 김경애, 여수안포어촌계 계장 이희한, 무안구로어촌계 계장 정경애, 해남송호어촌계 계장 중앙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대표수산기업 (주)아침가리, 여수 안포어촌계, 해남 송호어촌계가 전국 최초로 전복 분말, 피조개 분말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 전복·조개분말세트 43,000 원
- 전복분말(개당) 15,000 원
- 조개분말(개당) 7,000 원

(주)아침가리 대표 김영수

구매문의

(주)아침가리 061)542-8933
 (주)벌교꼬막 061)745-9907
 살롬산업(주) 1577-8885

5만원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JEONNAM FISH VILLAGE SPECIALIZED SUPPORT CENTER
 광주광역시 동구 광남로 238 무등빌딩 16층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T. (062) 220-0514 F. (062) 222-8005 홈페이지: www.jnbada.or.kr